

전남지사·무안군수, 군공항 이전 현안 논의 소통...또 불발

무안공항 국제선 취항식 조우...무안군수 모든 논의 거부 김영록 전남지사 "군공항 무안 이전은 도민 뜻 따라 결정" 김산 군수 "김 지사 인사말 말미 내용 언급하며 서운하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 현안 논의를 위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간 기대했던 소통의 물꼬는 또 불발로 그쳤다.

김 지사는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은 정확한 정보 제공 이후 도민(무안군민)에게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군수는 '무안군민의 뜻'이라며 관련된 모든 논의를 사실상 거부한 채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김 지사와 김 군수는 24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하이에어항공의 일본 키타규슈 국제선 취항식 행사장에서 만났지만 화동은 이뤄지지 못했다. 두 사람은 취항식 전과 종료 후에 행사장에서 짧은 악수만 나눴을 뿐이다.

이날 공항에 먼저 도착한 김 지사는 공항 2층 귀빈실에서 김 군수를 기다렸지만 김 군수는 행사 시간 직전에 도착해 곧바로 하이에어

항공 국제선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시각 김 지사는 귀빈실에서 서삼석 국회 의원과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한국공항공사, 하이에어항공사 관계자 등과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환담을 나눴지만 김 군수는 대화의 자리에 끝내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김 군수는 공항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에게 "무안군민이 원치 않기 때문에 김 지사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현안 논의를 할 수 없고, 관련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김 군수와 귀빈실 환담장에서 소통을 시도했다가 불발로 그쳤지만, 국제선 취항식 인사말을 통해 '광주 군·민간공항 동시 무안이전'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내선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도 무안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무안군민과 전남도민들이 숙고해 달라"며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면 저는 우리 (무안군민)도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그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KTX 무안공항역 신설, 활주로 연장, 주차공간·도로확장, 여객청사 리모델링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18일에는 항공노선 배정에 따라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이 배정됐고, 이에 최대한 빨리 무안공항 정기노선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이후 인사말을 한 김산 군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모두 막히고 여행객은 보이지 않아 먼지만 쌓이던 절망한 공항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이때 하이에어항공 국제선 취항식은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준비한 원고 인사말 외에



24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 귀빈실에서 공항 활성화 환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옆에 마련된 김산 무안군수 좌석이 불참으로 비어있다.

김 지사가 한 인사말 말미 부분 내용인 '광주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도 무안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숙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서운함이 있다"며 의미심장한 화답을 했다.

이는 광주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서 김 지사의 거듭된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군수와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화동은 미지수로 남게 됐다.

이슬비기자

광양제철소, 6억3000만원 들여 도심 경관 조형

백운아트홀·어울림체육관·공용시설 외벽 밝히



어울림체육관 LED 야간조형 설치 예상 조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광양시 금호동과 백운아트홀·어울림체육관 등에 경관 조형이 설치된다.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는 금호동 일대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6억 3000만 원을 들여 경관조형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철소에 따르면 경관 조형은 백운아트

홀, 백운플라자 및 어울림체육관에 설치된다. 건물 외관이 더 수려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건물 테두리에 LED(바피 조형)를 설치하고 외벽에 조명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야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관조형 개선 사업은 금호동 주요 도로인 백운로를 기준으로 시인성이 높은 건물에서 진행돼, 지역 야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4월 최종 승인에 이어 7월 착공해 9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올해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의 원년으로 삼고 최고·최대·최다 3원칙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광양제철소는 이 같은 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 사업을 더욱 활발할 방침이다.

광양제철소는 금호동 빗길 조성으로 봄철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광양제철소는 금호동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1년 준공된 어울림체육관은 1880㎡(570평)의 휘트니스 시설과 조깅 트랙,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을 갖췄다. 제철소 직원뿐만 아니라 금호동 주택단지 주민에게도 개방돼 지역 내 대표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했다.

백운플라자는 신인사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금호동 백운아트홀은 지난 2019년, 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시설 개선과 휴게시설 확충 및 야외무대·북카페 신축으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해 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내년 수도요금 인상 검토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77% 수준 불과...요금 현실화 불가피"

광주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한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4일 오전 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지나치게 낮다. 77%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도요금 인상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현재 광주지역 세대별 평균 수도요금은 9000원 수준이다. 현실적 요금수준 확보를 통한 배수지 신설·노후 시설 개선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관련 용역 절차를 거쳐 내년 수도요금 인상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도요금을 인상했다.

이 본부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현실적 요금수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광주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5개 자치구 120마리 대상 최대 40만 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 방지, 유실·유기견의 들개화 예방, 개물림 사고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 위협·농작물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외사육견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진도견 유사 품종과 믹스견을 이른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실외사육견 소유자로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되면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안내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0마리다. 수술 전 동물 등록이 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동물은 동물 등록과 검사를 진행한 뒤 중성화수술을 한다.

암컷 기준 최대 40만 원 한도로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한다. 소유자 자부담은 수술 비용의 10%로 최대 4만 원 수준이다. 체중과 성별에 따라 소유자의 자부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최이슬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1.1 M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3. 06
3. 사업운영기간 : 2023. 06 ~ 2048. 05(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5. 18. ~ 2023. 06. 01.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밀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해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전사 태양광발전소	이정진	99.45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룡리 891,892,1-4,1-28	(1,246㎡/11,570㎡)		
2	이야기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45		(1,057㎡/11,570㎡)		
3	란이2호 태양광발전소	박해란	99.45		(1,101㎡/11,570㎡)		
4	봉황 태양광발전소	김부영	99.45		(972㎡/11,570㎡)		
5	다해1호 태양광발전소	송수라	99.45		(905㎡/11,570㎡)		
6	선 태양광발전소	문형준	99.45		(948㎡/11,570㎡)		
7	민회 태양광발전소	김민회	99.45		(1,211㎡/11,570㎡)		
8	정원3호 태양광발전소	안경연	99.45		(956㎡/11,570㎡)		
9	희망 태양광발전소	정미숙	99.45		(980㎡/11,570㎡)		
10	봉황솔라팜 태양광발전소	최주경	99.45		(1,017㎡/11,570㎡)		
11	해누리1호 태양광발전소	송경숙	99.45		(1,177㎡/11,57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7배
4분위		125,531원	2.1배
3분위		79,147원	2.7배
2분위		48,103원	5.3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면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